

결실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pm
- 주일 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 찬양예배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간 성경 공부 Bible Study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 훈련 Discipleship Class / Mon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

건강한 믿음 성장의 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하나님 앞으로

경배와 찬양 찬양팀과 함께

기도 최 선 윤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 말씀

요한 일서 1:5-10

말씀 선포 / 김 성 배 목사

"성도의 정체성"

결단의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310장)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 헌 구 은 강 / 박 진 성 집사

봉헌 찬송 213장 "나의 보화 드리니"(4절)*

삶과 세상 속으로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502장) *

축복 기도 김 성 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사무엘상 14:1~15

양극단의 반응

2)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마 26: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순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도움을 구하셨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끌었다.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신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비록 박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신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우신다! 이것이 은혜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케노시스: 자기비움, 고성준**

돌파의 비결 - 그 일이 주님 뜻대로 되길 '성실하게' 기도하기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요, 영적 성공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요, 영적 성공이다.

'어쩔 수 없어.'라는 사탄의 언어

어떻게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에서 시작된다.

완성도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시작은 의지적 결단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당신은 순종할 수 있다. 당신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다.

순종은 당신의 선택이다.
순종하기를 결단하라.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종이 좀 더 수월하도록 도와주는 순종을 위한 팁을 발견하게 된다.

[빌 2:8]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
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자기를 "낮추셨다"고 한
다. 여기서 '낮추다'는 헬라어로 "내리누르다, 굴욕을 주다, 낮추다"라
는 의미이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사용된다.

[눅 14:10-11]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
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
다.

삶의 수준을 어느 선에서 고정하고, 그 이상 올리지 말라.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사람들의 인기에 마음을 두지마라. 순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면 순종이 어려워지지만, 낮은 곳에 마음
을 두면 순종이 쉬워진다.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역 / 행사

10월 결실의 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섬김, 소망의 인내로 가정과 교회,
이웃과 세상을 섬깁니다.

2023 주제 말씀 :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2023 표어 : 성장하는 교회

1. **성도의사명**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2. **Oikos친교/사역** 다음주일 저녁 김훈태/신실 집사 가정
에서 진행합니다.
3. **성경1독운동** 모두 참여합시다. (담당: 최선운 집사)
4. **제직회** 3/4분기 제직회가 10월 29일에 있습니다.
5. **연합사역** 10월 20일, 살롬교회에서 금요찬양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6. **TV 헌물** PCoP와 함께 사용할 TV를 섬김의 교회가 헌물
하고 오늘 셋업합니다. 관리 사역(이광호 집사)에서 진행
합니다.
7. **자녀**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Youth Ministry를
위해 기도합시다.
8. **연말 사역** 야외예배/apple picking, 연합예배가 연속
됐던 3주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송구영신예배
등의 남은 사역을 위해 준비합시다.

10월 사역

연합 금요 찬양예배(10/20), Oikos 친교/사역(22),
소금과 빛된 주간(15-21) 선교주일/사역친교(22)

❖ 한 주간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
쫓나니 - 요일 4:18

말씀 개요 요한일서 1:5-10/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빛의 자녀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첫째, 우리는 죄인, 둘째, 용서받은 죄인, 셋째, 빛의 자녀인 것이다

죄악의 그늘에 잠시 가리워졌어도 이미 용서를 받은 빛의 자녀란 정체성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양,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 요약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면 영성성장에 유익이 된다. 꼭 알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세가지 있다.

첫째, 우리는 죄인이다. 만일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짓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현실에서 죄인이라는 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죄를 죄로 알지 못하거나 죄를 범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아상은 온갖 위선과 교만으로 왜곡된다.

둘째,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김 없이 고백하면,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하신다. 그런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혜택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으므로 이 은혜를 기억해야만 겸손과 감사와 확신을 누릴 수 있다.

셋째, 빛의 자녀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는 어두움이었다. 죄를 용서받은 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교제와 교통)를 누리게 되었다. 즉,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근심과 어두움이 밝은 소망으로 변한다. 때로 우리가 세상의 죄악의 그늘에 가리우기도 하나 빛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야 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며 빛의 자녀들이다.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 용서받은 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며 힘차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자.

1. 2023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열매 맺도록
2.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섬기는 목회자의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 (10/1-10/10)
4.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Youth Ministry의 자리매김을 위해 특히, 해외 파병 근무 중인 이정운 군의 안전을 위해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 사역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튀르키예 박진란 선교사/ 네팔, 뉴욕 박은주 선교사
8. 교회 연합과 협력 사역을 위해

예배 섬김이	10월 15일	최 선 윤 집사
	22일	구 민 집사
주일 기도 인도	29일	구 은 강 집사
	11월 5일	최 내 권 집사

주일 헌금 위원	10월 15일	구 은 강 / 박 진 성 집사
	22일	박 진 성 / 구 은 강 집사
	29일	유 병 하 / 최 선 윤 집사
	11월 5일	최 선 윤 / 유 병 하 집사

주일 안내	10월	김 훈 태 집사
	11월	구 민 집사

성경공부 / 기도 모임

- 주 일 오전 11:00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약속
- 월요일 오전 10:00 교회 성장
- 화요일 저녁 8:00 인물 성경공부/Zoom

섬기는 사역자	지도 목사(Lead Pastor) 김성배 목사
	찬양 인도자(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교육전도사(Youth Pastor) Jacob Kim 전도사
